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설 농수산물 선물 매출 17% ↑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로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설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1조 401억원으로 지난해 설(8860억원)보다 17.4% 증가했다.

이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곳,

11번가·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2곳, 공영홈쇼핑·홈쇼핑 등 홈쇼핑 2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축산(16.4%), 수산(15.3%), 정과(14.1%) 등 신선식품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19.6%)의 전년 대비 매출 상승폭은 20%에 육박한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은 지난해 설 보다 14.7% 증가했다.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홍삼 제품 판매도 10.0%나 늘었다.

5만~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보다 18.7% 증가했다.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42.4%나 늘었고, 과일과 수산의 매출 증가폭도 각각 30.4%, 25.8%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401억원으로 지난해 설(240억원)보다 67.4%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도 상승 폭이 큰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선물세트 판매액도 23.3% 늘어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이번 설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1401억원으로 지난해 설(711억원)에 비해 97% 늘었다.

김정숙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개정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와 판촉활동 확대 등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항공여객 1천만명 돌파... '역대 최고치'

저비용항공사 여객 운송량, 전년비 34.4% 증가

지난달 항공여객이 100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제·국내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007만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여객은 2014년 1월 642만명, 2015년 1월 742만명, 2016년 1월 842만명, 2017년 1월 949만명, 올해 1월 100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 0.5%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공급력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753만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저비용항공사(LCC) 공급력 수는 전년 대비 31.7% 증가한

250만명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여객 운송량은 여객편 공급확대와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약 226만명)했고, 탑승률은 90.2%로 전년 동월 대비 1.8%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에서 전년 동월대비 22.1% 감소했으나, 일본(22.2%)·동남아(17.5%), 대양주(13.2%) 노선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항별로는 양양(391.4%), 대구(64.8%), 김해(15.3%), 무안(10.8%), 인천(8.3%), 김포(2.2%) 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41.3%), 정주(-28.7%) 공항은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완화 추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9.3%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공항의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증가와 주요 노선인 김포-제주(-3%), 김해-제주(-5.2%) 노선 여객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광주·울산·여수 등 지방발 제주노선 여객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254만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울산(64.3%), 광주(18.4%) 공항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김해(-3.9%), 여수(-3.7%), 김포(-3.4%) 공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저비용항사는 14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고 57.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기아차, 2세대 풀체인지 모델 '올 뉴 K3' 시판

기아자동차가 '올 뉴 K3'의 가격을 확정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뉴 K3는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업스케일 다이내믹 세단'을 목표로 개발했다.

기아차는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한 준중형 세단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에 맞춰 올 뉴 K3를 ▲트렌디 ▲러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 4개 트림으로 운영한다.

올 뉴 K3의 판매가격은 ▲트렌디 1590만원 ▲러셔리 1810만원 ▲프레스티지 2030만원 ▲노블레스 2220만원이다.

올 뉴 K3는 소비자 최선호 안전사양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를 전 트림 기본 적용하는 등 준중형 세단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추고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고객 만족을 높였다.

등급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인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와 소비자 선호 편의사양으로 구성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의 가격을 기존 대비 20만원 인하한 65만원, 3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또 운전 편의성을 높여주는 시가 기반 사버형 음성인식 기술 '카카오'가 적용되는 UV0 내비게이션의 무료 이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올 뉴 K3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13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영업일 기준 7일) 6000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하며 불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전계약 분석 결과 구매층은 전 연령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업스케일 다이내믹 세단의 상품성을 최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위 트림 선택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스노우 화이트 필 등 무채색 선택



6년 만의 풀체인지 모델...준중형 뛰어넘는 업스케일 다이내믹 세단 다양한 고객 니즈 반영해 4가지 트림 운영...판매가격 1590만원부터 1000명의 시승 및 K3 연비왕 콘테스트...다양한 고객 체험 프로그램

호 비율이 높았던 기존 K3와 달리 올 뉴 K3는 유채색 계열 선택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호라이즌 블루와 라웨이 레드 등 새롭게 추가된 컬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올 뉴 K3는 SmartStream G1.6과 SmartStream IVT탑재를 통한 ▲15.2km/1의 경차급 연비 실현 ▲기존 모델 보다 커진 차체 크기(전장 80mm 전폭 20mm, 전고 5mm 증가) ▲불꽃감 있고 다이내믹한 디자인 ▲등급 최대 트렁크 용량502l (VDA기준) ▲넓고 편안한 실내공간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고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시장에도 올 뉴 K3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정식 판매와 함께 고객들이 올 뉴 K3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27일부터 기아차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선발된 1000명의 고객에게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1000명의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고, 5월 말에는 K3 연비왕 콘테

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올 뉴 K3 판매 개시와 함께 '드라이빙 딜라이트'를 테마로 '연비'와 '디자인' 2편의 TV광고를 론칭한다. 이와 함께 올 뉴 K3의 특징을 위트있게 설명해주는 'K3 딜라이트 랩' 디지털 필름도 기아차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각종 포털 등 온라인에 론칭한다.

이을러 출고 고객 선착순 2인칭을 대상으로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0만km로 5년 연장해주는 '스미스트림 더블 개런티'와 차량 외부 손상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스타일 개런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업스케일 다이내믹 세단 올 뉴 K3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사전계약부터 뜨겁다"며 "준중형 이상의 상품성으로 무장한 올 뉴 K3가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고 준중형 시장에 불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

티웨이항공, '영미' 이름 200명에게 나고아 항공권 공짜 이벤트

티웨이항공이 우리나라 모든 영미 들을 위한 무료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티웨이항공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티웨이항공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영미'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댓글 신청을 받는다. 단, 티웨이항공 회원일 경우 응모가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의 이름과 여권상

의 정보가 같아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이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빛깔의 절정인 나고아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증정한다. 탑승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티웨이항공의 나고아 노선은 인천에서 오전 7시25분에 출발 오전

9시20분 나고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돌아오는 편은 나고아에서 오후 7시 30분에 출발, 오후 9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이점부터 저녁까지 여행 일정을 보낼 수 있는 운항 스케줄이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을 계획해도 보다 짝 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